

2024. 5. 2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세종문화회관 커뮤니케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장	김화영	02-399-1140
커뮤니케이션팀 담당	손귀영	02-399-1148
공연제작2팀 담당	신기루	02-399-1783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www.sejongpac.or.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4쪽

광화문광장, 누구나 즐기는 오페라극장 되다

- 광화문광장에서 무료로 즐기는 야외 오페라 6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
- 시민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단막 오페라 ‘P.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은 영화 <대부> 삽입곡으로 유명
- 실력과 성악가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예술단 123명 출연
- 5월 27일(월)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누리집 통해 관람 신청
- 환경 캠페인 동참을 위해 다화용기 사용자에게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선착순 제공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6월 11일(화), 12일(수) 양일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서울시오페라단(단장 박혜진)의 제2회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한다. 작년 <카르멘>의 폭발적인 관객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오페라단이 준비한 두번째 야외 오페라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피에트로 마스카니(Pietro Mascagni, 1863-1945)의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가 배경인 사실주의(베리즈모, Verismo) 오페라다.

○ 작품 중 합창곡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Gli aranci olezzano)’와 오케스트라 간주곡(Intermezzo)이 서정적인 멜로디로 유명하다. 특히 간주곡은 영화 <대부>에 삽입되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 지휘 김덕기, 연출 엄숙정이 참여하고 소프라노 조선형, 테너 정의근, 이승묵, 바리톤 유동직, 박정민, 메조 소프라노 송윤진, 정세라 등 실력과 성악가가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오페라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123명의 시민예술단도 참여한다. 작년 카르멘 무대에 선 79명의 시민예술단은 서울시민들이 가진 높은 예술성을 선보이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예술단은 80분에 달하는 이탈리아 원어 가사를 외우며 연습에 적극 참여하는 등 높은 의지를 선보이고 있다.

□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야외오페라는 서울시민들을 비롯하여 광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2023년 사전관람 예약은 5시간 만에 2,000석이 매진되었다. 카르멘 공연 당일에는 사전 신청한 관객과 광화문광장 이용객 등 약 5천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마련된 객석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광장 벤치 등에 앉아 관람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 무료로 진행되는 제2회 광화문광장 야외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관람 신청을 받는다. 예약은 1인 2매, 1회 공연에 한하여 가능하며, 2,000석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예매에 성공한 관객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의 티켓 창

구에 도착하여 좌석권을 수령해야 하며, 공연 30분 전까지 미수령시 현장 대기자에게 좌석권이 양도된다. (세종문화회관 누리집 www.sejongpac.or.kr)

- 서울시에서는 “더 맑고 깨끗한 서울”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탄소 저감,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제2회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에 동참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 무대는 목재 대신에 재활용이 가능한 LED를 사용할 예정이다. 무대 영상 콘텐츠는 가우디, 고흐, 마티스 등의 작품 영상화로 트렌디한 복합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주)티모넷이 후원한다. 또한 빛의 시어터 협력으로 입체 영상을 활용한 무대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환경캠페인 동참을 위해 오페라 관람 관객 중 텀블러나 리유저블컵 등 다회용기를 지참한 시민에게는 일리카페 코리아와 하겐다츠 협찬으로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크림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박혜진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은 “광화문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오페라 관람을 통해 일상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음악이 주는 감동과 마음의 위안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지난 1회 야외 오페라 공연을 감상한 시민들의 수준 높은 공연 관람 문화에 놀랐다”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고전 오페라를 서울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붙임 1. 공연개요 1부.
2. 공연사진 1부.

붙임 1	공연 개요
-------------	--------------

공연명	제 2회 광화문광장 야외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장소	2024.06.11.(화)-12(수) 19:30 / 공연시간 80분 내외(1막)
작곡 및 대본, 원작	작곡 : P. 마스카니 / 대본 : T. 토제티, G. 메나시 / 원작 : G. 베르가
제작진	예술감독_박혜진 지휘_김덕기 연출_엄숙정 음악코치_정호정
출연진	산뚜짜(소프라노)_조선형 / 뚜릿뚜(테너)_정의근 이승목 / 알피오(바리톤)_유동직 박정민 루치아(메조소프라노)_송윤진 / 로라(메조소프라노)_정세라 시민예술단, 마에스타오페라합창단,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무료
사전예약	세종문화회관 누리집 (www.sejongpac.or.kr)

줄거리

부활절 아침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면서 뚜릿뚜가 옛 애인 로라를 그리워하며 세레나데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이 부활절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가며 합창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를 부른다. 이후, 루치아(뚜릿뚜의 어머니)에게 산뚜짜가 찾아와 뚜릿뚜가 옛 애인 로라를 잊지 못하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면서 루치아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한다. 성당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합창 “레지나첼리”가 울려 퍼지며 마을 사람들은 성당으로 들어간다. 뒤이어 뚜릿뚜가 나타나 산뚜짜에게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거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때, 뚜릿뚜의 애인 로라가 성당으로 가기 위해 지나다가 두 사람의 다툼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보이자 이에 격분한 산뚜짜가 저주를 퍼붓는다. 산뚜짜는 로라와 함께 가려는 뚜릿뚜를 붙들고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나, 뚜릿뚜는 산뚜짜에게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뿌리친다. 이에 격분한 산뚜짜는 로라의 남편 알피오에게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알리고 알피오는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이 격양된 분위기 사이로 비극을 예감하게 하는 아름답고도 장엄한 간주곡이 흐르게 된다. 뚜릿뚜는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오는 로라와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집에서 한잔하고 갈 것을 권하며 흥겹게 술을 마신다. 한편, 복수를 다짐한 알피오는 뚜릿뚜를 찾아 광장으로 오게 되는데, 알피오가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긴장으로 바뀐다. 뚜릿뚜는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알피오에게 술을 권하지만, 알피오는 거절하고 사태를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한 뚜릿뚜는 결투를 신청한다. 뚜릿뚜는 죽음을 예감한 듯 루치아에게 산뚜짜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결투장으로 향한다.



2023년 제 1회 광화문광장 야외오페라 <카르멘> 공연사진(1)



2023년 제 1회 광화문광장 야외오페라 <카르멘> 공연사진(2)